

## 순천시, 메르스에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올인'

주요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  
시청 직원들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예술·체육행사 정상 운영  
추경예산 7·8월에 집중 집행

순천시가 '중동 호습기후증후군'(MERS)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메르스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이용객이 30% 감소했고,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도 6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중 단체방문 및 숙박예정 인원 가운데 3800여명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메르스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 ▲관광진흥기금 특별 용자 ▲문화예술·체육행사 정상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추가 경정예산 7~8월 집중 집행 등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는 관광객 확보를 위해 순천만정원 등 주요 관광지 5곳에 대해 26일부터 7월 말까지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또 메르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기금 특별 용자를 실시한다. 기금은 메르스 사태로 특별 배정된 400억원과 하반기 정기용자 배정액 320억원을 포함해 모두 720억원이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17개 업종으로, 오는 30일까지 해당 업종 협회 및 시·도 관광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메르스로 예약 취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는 운영 자금으로 제한되고, 금리는 연 1.5%로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별로 개별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시 직원들은 15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내 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려 시청 주변 식당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아고라 순천' 등 문화예술 공연과 체육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조례수공예관과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한다. 또한 순천만정원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시민



순천시 메르스(MERS) 관리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최근 확산 예방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주말에는 시민 재능기부와 가수 '수와 진' 공연이, 물놀이 시설 또한 재가동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추가 경정예산 850억원 중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예산을 7~8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자 메르스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으로 그동안 침체됐던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박선천기자 psc@

순천교육청 봉사동아리  
동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수) 직원들이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순천교육청 봉사동아리 '나눔우리'는 최근 순천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천 주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신경수 교육장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는 탐무드의 명언을 인용하며 "나눔 실천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교육지원청은 특색교육인 '아름다운 나눔실천'을 통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과 사랑의 줌드리 운동, 직장동호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박선천기자 psc@

국가유공자 가구에 생필품

한전 순천지사 전달



한국전력 순천지사(지사장 한인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저소득 국가 유공자 10가구를 대상으로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전기안전 점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인규 지사장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밀착형 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직원들의 기부금과 회사 지원금을 더해 마련한 1억5000만원의 성금을 최근 한국에너지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업소장 추천 가구 및 순수 주거용 고액 중 전기요금 3개월 이상 미납된 가구이다. 그러나 최근 2년 이내 지원 실적에 있는 가구와 미납 전기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박선천기자 psc@

### '한평정원 디자인전'

9월5일~10월3일

참가자 30일까지 모집

순천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만정원에서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디자인전에는 작가부, 학생부, 일반시민부 등 3개 분야에 총 70개 팀이 참여해 아이디와 개성이 넘치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평정원 디자인전과 함께 참여 작가와의 정원토크 콘서트, 시민정원문화 포럼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에서는 참가 부문별로 대상(장관상), 최우수상(도지사상) 등 시상과 함께 총 5000여만원에 달하는 상금도 지급한다. 전시 참가자는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개최된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 의미를 한층 더 높여 대한민국의 정원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생활 환경 개선의 기반 마련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순천시 정원산업과(061-749-2784) /순천=박선천기자 psc@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순천 관내 CCTV 1100대를 한곳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순천시 CCTV 통합 관제센터' 내부 모습.

### 순천 CCTV 관제센터 운영 한달...안전지킴이 역할 특출

1100대 24시간 관찰 신속 대응  
수배자 검거 등 성과 잇따라

지난 5월 문을 연 순천시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가 지역에 안전지킴이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 3명과 관제인력 25명이 CCTV 1100대를 24시간 실시간 관찰하며, 범죄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경찰 순찰차와 유관기관 등에 즉시 알려 신속하

게 대응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개소 이후 한달여동안 수배자 검거 3건, 차량탈이 미수범 검거 1건, 차량 절도자 검거 1건, 음주운전 적발 1건, 화랑훈련시 대항군 검거 1건, 취객 계도 2건, 기타 치매환자 수색 2건 등의 성과를 보였다. 지난달 16일 밤에는 순천역 앞에 취객이 쓰러져 있는 것을 CCTV로 확인, 역전 파출소에 이를 알리고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또 지난달 21일 순천의료원에서 가출한 80대 치

매환자를 현장에서 3km 떨어진 남제동 주민센터 부근 CCTV로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밖에도 지난 1일 순천시 연향동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 도난사건 피의자 검거, 지난 4일 심야 상가 주차차량 출입문 파손 용의자 검거 등 각종 범죄에도 CCTV를 활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년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저해상도를 단계별로 교체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박선천기자 psc@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매일”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계거점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역		
광 신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0-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남 광 부	222-9440
장 읍 시	063)531-5544	서 울 보 금 소	02)313-5962	동 동 동	652-0175
				동 동 동	264-2012
				동 동 동	222-9054
				동 동 동	225-6001
				문 문 문	267-4748
				백 백 백	673-4998
				봉 봉 봉	676-5530
				북 북 북	525-3781
				상 상 상	372-2352
				무 무 무	369-0683
				서 서 서	678-6605
				하 하 하	512-1732
				신 신 신	671-7658
				양 양 양	266-7601
				오 오 오	522-7752
				우 우 우	512-8116
				운 운 운	371-8818
				천 천 천	961-2339
				화 화 화	222-1896
				중 중 중	224-6604
				흥 흥 흥	673-1500
				월 월 월	873-2900
				침 침 침	224-8212
				당 당 당	376-6511
				평 평 평	682-8112
				임 임 임	969-1500
				하 하 하	375-8662
				화 화 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